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초 록

이 연구는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준비도와 심리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적응준비도는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 시간적 측면, 기술적 측면, 탈북과정상의 문제 측면이라는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심리적응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정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그리고 교육적 영역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에서도 특히 외상경험의 정도 및 건강상태,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세 가지 요인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준비도, 심리적응,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6년도 연구보고서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 I」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교수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한국·독일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I. 서 론

현재 국내에는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2007년 3월 기준으로, 총 1,615명으로 집계되었다(통일부, 2007). 이렇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남한사회 적응은 이들 자신 뿐 아니라 남한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 일정기간 생활한 후 남한이라는 이질적인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과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잘 적응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기준이 건강한 심리적응용까지를 포함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심리 체계를 형성하였다면, 외적으로도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응용을 남한사회 적응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이들의 심리적응용의 정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 대상의 실증적 조사연구(예: 박선경, 1998; 김미숙, 2004; 박윤숙, 2006)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질적 연구였다.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연구가 이루어진 데에는 아마도 초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가 적었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들은 적응과정상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에 대한 양적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그 크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양적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대한 양적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조사연구에 앞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심리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각 변인의 특성에 따른 적응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문헌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자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크게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 시간적 측면, 기술적 측면, 탈북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으며 각 측면 안에 세부적인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각 측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선행연구

1) 개인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 종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연령

일반적으로 적응은 연령이 낮을수록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소래(1997)는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세를 기준으로 낮은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 비해 더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구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연구결과(예: Meredith, Wenger, Liu, & Harada 2000)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반드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연령과 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거나(금명자·김동민·권해수·이소영·이희우, 2003; 박윤숙, 2006), 오히려 낮은 연령이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인 경우(김형태, 2004; 선한승, 1995; 전우택, 1997)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에 대해 전우택(199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첫째, 언어적 이질감이 적은 남한으로 이주함으로써 언어습득이 빠른 어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고 둘째, 적응상의 어려움을 다루는 전략은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하기(Berry, 1987)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은 연령이 적응 영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남한사람 이해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와 경제 및 주거 불만족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별

성별과 관련하여 서구사회에 정착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 Gibson, 1997)나 북한이탈주민 대상(예: 김형태, 2004; 윤여상, 2001; 정진경, 2002)의 연구들 중 상당수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우택 등(2005)은 남한사회 적응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나 3년 이후에는 정신신체 건강만족도를 제외하고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금명자 등(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정체감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박윤숙(2006)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적응수준이 높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남자의 경우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일탈행동으로 부적응 상태를 표출하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울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3) 신체적 특성 및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및 건강상태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예: 박경애, 2002; Marlene & Kelly, 2004)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도래에 비해 작은 키와 덩치로

인해 위축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창호, 2001; 이기영, 2002). 체격의 왜소함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더욱 민감한 요인(이춘재·오가삼·정옥분, 1991)이므로, 신체적 왜소함은 남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성인 북한이탈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소래, 1997)에서는 건강이 양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교

종교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예: 길은배·문성호, 2003; 전우택, 199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있어서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길은배·문성호(2003)는 종교 그 자체보다는 종교단체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은 종교성향 및 활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영수(2003)는 종교를 남한사회 적응의 저해 요인으로 보았다. 남한사회 정착초기에는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인해 종교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종교적인 갈등과 동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으로는 가족, 남한 및 북한출신 친구, 후원자 등 사회적 지지원 등이 있다.

(1) 가족

일반적으로 가족은 한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들보다 남한친구가 많고, 수업시간의 집중도도 높으며, 남한사회 지식을 더 즐겁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 2003).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김형태, 2004; 장창호, 2001)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겪게 하기도 한다며 가족이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2) 후원자

남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후원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주민들, 특히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 박윤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후견인보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부모보호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적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형태(2004)는 그룹홈이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친구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는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 정보 제공자, 역할 모델, 강화자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후 가정을 제외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른 소속감의 결여는 소외감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장창호, 2001). 이러한 소외감은 같은 또래의 북한출신 친구들이나 남한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극복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또래와의 관계는 심리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다(김미숙, 2004; 김형태, 2004). 그러나 정작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낮은 진학으로 인한 동급생들과의 나이차이, 그들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편견,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차이 등을 이유(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로 남한의 또래와 친구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에 이르기도 하는데, 특히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못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3) 교육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측면으로는 남한입국 후 거치게 되는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과 거주지 정착 후 다니는 학교교육 등을 들 수 있다.

(1)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에서의 교육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는 하나원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둘학교의 영향은 그 안에서 경험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인 적응과정에 있어서 하나원을 조기 퇴소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원의 시설, 교육기간, 학습내용, 강사, 인적 자원과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창호, 2001).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지만 그 교육내용이 실제 남한사회 적응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길은배·문성호, 2003).

(2) 거주지 정착 후의 학교교육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정규학교의 생활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남한거주 기간이 6개월~2년 6개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100%가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반면, 청소년들은 부적응으로 인하여 정교학교 재학율이 38%에 불과하였다(정진경 외, 2005). 또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교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김미숙, 2004; 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학업성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정규학교 교육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규학교생활이 북

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시간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측면에는 탈북시기 및 제 3국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탈북 시기 및 제 3국에서의 거주 기간

선행연구들은 제 3국에서의 경험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절제한 생활과 절도, 범죄행위의 경험, 중국 공안(경찰)에 발각되거나 인신매매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제 3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며, 이후 남한 생활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윤인진, 2000; 장창호, 2001).

그러나 제 3국에서의 시장경제 경험이나 외국어의 습득은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장창호, 2001; 윤인진, 2000). 이에 대한 증거로 윤인진(2000)은 남한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체제에 부분적으로나마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동유럽 유학생이나 해외주재 외교관, 외화벌이요원들임을 지적하였다.

(2) 남한 거주기간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예: Koser, 1997).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이장호, 1996; 전우택, 1997).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남한정착 후 두 번째 해를 위기기간으로 보며 정착 후 4~5년이 지나야 비로소 적응단계에 이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 역시 남한생활 초기에는 정보부족 및 제한된 인간관계, 문화나 언어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을 사귀거나 특정 집단에 강하게 소속됨으로써 부적응을 극복하기도 한다(장창호, 2001). 그러나 친구관계나 학업 등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정착 초기의 불안이 후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장창호, 2001)은 단순히 거주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적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기술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측면으로는 의사소통 및 북한 사투리 사용 등의 언어문제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습득정도 등이 있다.

(1) 의사소통

북한이탈주민들은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차이, 북한 사투리 및 억양의 사용, 외래어나 한자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남한에서의 언어사용 및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김형태, 2004; 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기회 및 빈도가 줄어들음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한받기도 하며(길은배·문성호, 2003),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4; 박선경, 1998).

(2) 정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이 진학 및 진로 선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부족 및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길은배·문성호, 2003; 이기영, 2002). 또한 길은배·문성호(2003)는 무연고 청소년들이 정착 초기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고하며 이들의 경제

적 적응정도는 남한사회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많은 양의 올바른 정보를 확보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일탈행위를 적게 하며(박윤숙, 2006) 문화 적응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6) 탈북과정상의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과정상의 문제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경험¹⁾의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내에서 뿐 아니라 탈북과정이나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동안 많은 외상적 사건들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예: 강성록, 2000; 김윤영, 2005; 윤인진, 2000;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전우택, 2000; 조한범 등, 2003).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 2004)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9%가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불안, 우울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아·전우택·유시은·엄진섭(2005)도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한편 이소래(1997)는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의 경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며 위의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외상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심리적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전우택, 1997) 설문에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PTSD의 발병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변인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서 선

1) 외상적 경험이란 학대, 자연재해나 전쟁,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상처나 폭력에 의한 죽음 등과 같이 충격적(외상) 사건에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요인들 중에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만 나타난 것들이 있어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양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8곳에 재학 중인 학생집단(120명)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집단(80명)이었다. 조사 당시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11살에서부터 29살²⁾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약 만19세(231개월, 표준편차 = 35.73, 무응답자 8명 제외)였다. 또한 이들의 성별은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하고 남자가 99명, 여자가 95명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 즉 적응준비도와 심리적응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적응준비도

적응준비도에 관한 설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영역(6문항; 연령, 설

2)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24세 이상이라도 제 3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 및 교육의 공백으로 인해 아직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인 경우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별, 건강상태, 종교의 유무), 시간적 영역(3문항; 탈북시기, 남한거주기간, 제 3국 거주기간),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16문항; 외상경험 척도), 기술적 영역(4문항;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획득정도), 교육적 영역(5문항; 정규학교재학여부, 하나원 만족도, 하나둘학교만족도), 사회적 영역(9문항; 가족의 크기, 남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남한친구와의 유대정도, 북한출신친구와의 유대정도, 후원자와의 유대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은,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중 외상경험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김형태(2004)와 박윤숙(2006)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중 외상경험에 관한 문항은 강성록(2000)이 제작한 외상경험 척도를 금명자 등(2004)이 그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금명자 등(2004)이 사용한 문항 중 겹치는 문항들³⁾을 합쳐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심리적응

심리적응에 관한 척도는 표준화 척도인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에 속하는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와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모두 119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화 문제 척도와 외현화 문제 척도⁴⁾는 각각 31문항과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재화 문제 척도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이라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외현화 문제 척도는 비행과 공격성이라는 두 가지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다.

3) 북한 내 경험과 탈북과정상의 경험에 대한 질문 중 겹치는 내용은 '식량 및 음료 부족의 경험', '가족 및 동료와의 예기치 않은 헤어짐에 대한 경험', '모욕, 배신, 성적 모욕의 경험'에 관한 문항이다.

4) 여기서 내재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을 포함한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대안 학교 8곳에 재학 중인 이들과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자료는 대안학교의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으며, 개인적 접촉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자료는 현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3명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설문지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영역별 독립변인들 간의 상대적 기여도 및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 과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준비도와 이들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응준비도는 크게 개인적 영역, 시간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문제 영역, 교육적 영역, 기술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별 독립변인들이 심리적 적응, 즉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1) 개인적 영역

개인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각 연령대별 남녀의 수는 <표 1>과 같다. 남녀 모두 16~20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21~25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자는 15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응답률(무응답자 27명 제외)을 보면, ‘매우 좋다’ 또는 ‘좋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09명(62%),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16명(9%)이었다. 응답자들의 종교는(무응답자

14명 제외),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125명이 개신교라고 응답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가 각각 6명, 1명, 4명이었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0명이었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대 및 성별

(단위: 명)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세 이상	합 계
남 자	6	59	31	1	97
여 자	19	54	18	1	92
합 계	25	113	49	2	189

<표 2>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55)

변 인	내재화 (DV ^a)	1	2	3	4	B ^b	β^b	ΔR^{2b}
1. 연 령	.181*	--				.005*	.165	.027
2. 성 별	-.094	-.150*	--					
3. 건강상태	.372**	.044	.022	--		4.056**	.365	.139
4. 종교유무	.035	-.087	-.103	.094	--			
						절편 = -3.430	$R^2 = .166$	
평 균	16.59	229.61	1.50	2.17	1.83	교정된 $R^2 = .155$		
표준편차	10.53	35.61	.50	.95	.70		$R = .407^{**}$	

^a DV = Dependent variable.

* $p < .05$ ** $p < .01$

^b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는 표준화 회귀계수, ΔR^2 는 R^2 변화량

이러한 개인적 적응 준비도에 따라 응답자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내용으로는 왼편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오른편 상단에는 회귀계수 및 R^2 변화량을, 오른편 하단에는 절편 및

전체 R^2 값 등을 제시하였다. <표 2>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였다. 건강상태 및 연령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R^2)은 각각 약 14%와 3%이며, 총 설명력은 약 17%였다.

한편 개인적 적응 준비도(연령, 성별, 건강상태 및 종교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들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건강상태 및 성별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 값은 각각 약 7%와 9%이며 총 설명량은 약 16%로 나타났다(<표 3>).

<표 3>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45)

변 인	외현화 (DV)	1	2	3	4	B	β	ΔR^2
1. 연 령	.000	--						
2. 성 별	-.301**	-.175*	--			-4.434**	-.308	.091
3. 건강상태	.097	-.108	.020	--		1.975**	.259	.067
4. 종교유무	.250**	.044	.028	.064	--			
					절편 = 13.280	$R^2 = .157$		
평 균	10.95	229.48	1.50	1.71	2.19	교정된 $R^2 = .146$		
표준편차	7.22	34.86	.50	.45	.95	$R = .397^{**}$		

* $p < .05$ ** $p < .01$

2) 시간적 영역

시간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탈북시기 및 남한 입국시기,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이들의 평균 탈북기간은 약 66개월(표준편차 33.60)이었으며 탈북기간은 8개월에서부터 16년까지 그 기간이 다양하였다. 탈북 후 제 3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약 33개월(2년 9개월, 표준편차 28.06)이었으며 거주 기간의 범위는 0개월에서 99개월에 걸쳐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시기를 보면, 1개월 전에

입국한 청소년에서부터 80개월 전에 입국한 청소년까지 있었으며 평균 입국시기는 32개월(2년 8개월, 표준편차 18.67)전이었다.

시간적 적응 준비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적 적응 준비도는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국시기가 짧고 북한이탈 시기가 길수록 응답자들의 외현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예언변인들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 값은 각각 약 3%로 총 설명력은 약 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1> 내재화 및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81)

변 인	1	2	3	4	평 균	표준편차
1. 내재화	--				16.65	10.59
2. 남한거주 기간	-.006	--			32.37	18.63
3. 북한이탈 기간	.093	.530*	--		66.38	33.36
4. 제 3국 거주기간	.078	.079	.735**	--	33.22	27.66

<표 4-2>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시간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6)

변 인	외현화 (DV)	1	2	B	β	ΔR^2
1. 남한거주 기간	-.167*	--		-.112**	-.226	.028
2. 북한이탈 기간	.047	.526**	--	.004*	.187	.025
절편 = 11.804 $R^2 = .053$						
평 균	11.02	31.49	65.07		교정된 $R^2 = .042$	
표준편차	7.70	18.19	33.95		$R = .231^{**}$	

* $p < .05$ ** $p < .01$

3) 탈북과정상의 문제

탈북과정상의 문제는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외상 경험의 정도와 탈북에 대한 죄의식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죄의식의 정도를 먼저 살펴보면, 헤어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무응답자 2명 제외)의 약 75%(148명)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괴로워하는 사람들(39%)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6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상경험에 대한 항목별 경험자의 비율을 보면, “탈북과정에서 외국의 낯선 땅, 언어를 처음 대하고 몹시 두려웠던”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했던 외상경험들은 <표 5>와 같다.

<표 5> 외상 경험자의 비율

항 목	비 율(%)
1.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식량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63.8
2.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50.7
3.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간 후 소식을 몰라 몹시 불안했던 적이 있다.	53.0
4. 탈북과정에서 외국의 낯선 땅, 언어를 처음 대하고 몹시 두려웠다.	71.5
5.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몹시 긴장한 적이 있다.	62.9
6. 탈북 준비나 과정 중에 발각될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다.	56.5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탈북과정상의 문제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는 외상경험이 많고 죄책감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 정도에 대한 외상경험 및 죄책감의

설명력(R^2)은 각각 14%와 2%이며 이 두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약 16%정도이다(〈표 6〉).

한편 외현화 문제의 경우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외현화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 정도에 대한 외상경험 수준의 설명력(R^2)은 약 10%정도이다(〈표 7〉).

〈표 6〉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0)

변 인	내재화 (DV)	1	2	B	β	ΔR^2
1. 외상경험	.376**	--		.373**	.359	.141
2. 죄책감	.192**	.114	--	1.073*	.151	.023
절편 = -1.936 $R^2 = .164$						
평균	17.14	35.91	5.30		교정된 $R^2 = .154$	
표준편차	10.41	10.02	1.48		R = .405**	

* $p < .05$ ** $p < .01$

〈표 7〉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탈북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62)

변 인	외현화 (DV)	1	2	B	β	ΔR^2
1. 외상경험	.314**	--		.242**	.314	.099
2. 죄책감	.102	.102	--			
절편 = 2.550 $R^2 = .099$						
평균	11.30	36.11	5.32		교정된 $R^2 = .093$	
표준편차	7.82	10.14	1.47		R = .314**	

** $p < .01$

4) 기술적 영역

기술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의사소통의 정도와 정보획득의 정도로 나누어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 소통에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기(198명 중 100명; 51%)보다는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못 알아 들어 답답한 경우(198명중 114명; 58%)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194명)중 약 75%(144명)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200명)중 약 59%(117명)는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제도를 잘 몰라 손해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정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표 8〉). 의사소통의 수준만이 내재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R^2)은 약 3%정도였다. 한편, 외현화 문제에는 기술적 적응 준비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적응 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9)

변 인	내재화 (DV)	1	2	B	β	ΔR^2
1. 의사소통	.160*	--		1.191*	.160	.026
2. 정보획득	.074	.369**	--			
				절편 = 10.387	$R^2 = .026$	
평 균	16.51	5.14	5.67		교정된 $R^2 = .020$	
표준편차	10.42	1.40	1.35		$R = .160^*$	

<표 8-2>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0)

변 인	1	2	3	평 균	표준편차
1. 외현화	--			11.16	7.79
2. 의사소통	.068	--		5.18	1.47
3. 정보획득	.022	.402**	--	5.74	1.38

* $p < .05$ ** $p < .01$

5) 교육적 영역

교육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현재 정규학교의 재학여부 및 학년, 하나원 교육의 만족 정도, 하나돌학교의 만족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140명)의 약 36%(50명)였으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4%(75명)이었다. 한편 응답자들 중 하나원 교육 및 하나돌학교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70~85%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교육적 적응 준비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규학교 재학여부 및 하나돌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내재화 문제에(<표 9>), 학년 및 하나돌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외현화 문제(<표 10>)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하나돌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낮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 재학여부 및 하나돌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 값은 각각 약 13%와 약 6%로,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19%정도였다. 한편 학년이 낮거나 하나돌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은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학년 및 하나돌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 R^2 값은 각각 약 12%와 약 9%로,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21%였다.

<표 9>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N=88)

변 인	내재화 (DV)	1	2	3	4	B	β	ΔR^2
1. 정규학교 재학여부	269**	--				5.072*	.237	.056
2. 학년	-.183*	-.331**	--					
3. 하나원 만족도	-.360**	-.094	.483**	--				
4. 하나돌학교 만족도	-.156	-.216*	-.077	.005	--	-2.556**	-.337	.129
						절편 = 22.095	$R^2 = .185$	
평 균	16.31	1.67	9.96	5.77	5.58	교정된 $R^2 = .166$		
표준편차	10.12	.47	2.18	1.29	1.34		$R = .430^{**}$	

* $p < .05$ ** $p < .01$

<표 10>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85)

변 인	외현화 (DV)	1	2	3	4	B	β	ΔR^2
1. 정규학교 재학여부	.212	--						
2. 학년	-.344**	-.242*	--			-1.268**	-.349	.118
3. 하나원 만족도	-.149	-.282**	-.047	--				
4. 하나둘학교 만족도	-.294**	-.162	.690**	-.015	--	-1.819**	-.299	.089
절편 = 34.454 $R^2 = .208$								
평 균	11.62	1.68	9.99	5.77	5.59	교정된 $R^2 = .118$		
표준편차	7.77	.47	2.14	1.20	2.14	R = .456**		

** p < .01

6)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적응 준비도는 남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 및 크기, 북한에서 내려 온 친구들 및 남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의 사회적 지지원의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족 모두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무응답자 5명 제외)의 약 46%(90명), 가족 중 일부만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6%(71명), 그리고 가족 없이 혼자만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7%(34명)로 나타났다. 가족의 크기를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가족의 평균수는 2.4명(표준편차 2.64)이었으며, 외가족 가족까지 포함하여 최대 25명이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남북한 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한 친구들(약 49%)보다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약 68%)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무응답자 3명 제외)의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가족과 친구 외의 지지원과 비교적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적응 준비도는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그리고 가족이 많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친구들과의 관계 및 가족의 크기가 가정적응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R^2)는 각각 약 3%씩이며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약 5%로 나타났다(표 11).

<표 11-1> 사회적 적응 준비도의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71)

변 인	1	2	3	4	5	6	평균	표준편차
1. 외 현 화	--						11.01	7.79
2. 북한친구	-.084	--					5.67	1.60
3. 남한친구	-.126*	.217**	--				4.85	1.70
4. 지 지 원	-.049*	.187**	.087	--			6.01	2.91
5. 가족형태	-.042	-.103	-.117	-.106	--		1.70	.73
6. 가족크기	.096	.115	.170*	.152*	-.601**	--	2.40	2.14

<표 11-2>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 적응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179)

변 인	내재화 (DV)	1	2	3	4	5	B	β	ΔR^2
1. 북한친구	-.092	--							
2. 남한친구	-.158*	.183**	--				-1.065*	-.172	.025
3. 지 지 원	-.088	.179**	.083	--					
4. 가족형태	-.131*	-.072	-.077	.070	--				
5. 가족크기	.149*	.040	.084	.077	-.514**	--	.635*	.164	.027
					절편 = 20.081			$R^2 = .051$	
평 균	16.42	5.67	4.93	6.00	1.70	2.50	교정된 $R^2 = .041$		
표준편차	10.49	1.61	1.69	2.85	.73	2.71	$R = .227^*$		

* $p < .05$ ** $p < .01$

V. 논 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준비도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의 적응준비도 영역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낮고 건강할수록 그리고 성별은 여자일 경우가 심리적응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성별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었는데 비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적응에서의 성차는 적응유형의 차이로서 남자는 일탈과 같은 외현화 행동으로, 여자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으로 부적응의 상태를 표출한다는 박윤숙(2006)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음을 시사(김형태, 2004; 윤여상, 2001; 정진경, 2002)한다.

한편 연령은 내재화 문제행동과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령이 적응에 영향요인이 아니라거나(박윤숙, 2006) 어릴수록 더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연구결과(김형태, 2004)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수준이 높다는 서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예: Meredith et al., 2000)와 일치하였다.

건강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사회 적응 및 심리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이소래, 1997).

개인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즉 시간적 영역, 탈북과정상의 영역, 기술적 영역, 교육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변인들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재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에 의한 죄책감 및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사투리 등으로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을수록,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마지막으로 남한친구와의 접촉기회가 적고 친밀정도가 낮을수록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갈등은 남한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형태, 2004)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이들에 비해 더 많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정규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등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현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내재화 문제에 비해 관련있는 변인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거주 기간이 짧고 북한이탈 기간이 길수록,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둘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첫째, 북한이탈 기간이 길수록 많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소속이 없이 무절제하게 생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약화되는 등 자기통제력이 상실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외상경험과 함께 연결하여 그 기간 동안 보다 정도가 심한 외상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외현화 행동을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보다 정확한 관련성은 추후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외현화의 문제는 방치될 경우 이후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 기간은 긴 반면 남한거주 기간이 짧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들의 부적응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라 학년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연령에 상관없이 학년이 낮은 것⁵⁾이 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

5)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특히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따라 낮은 학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하며, 각 요인의 수준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 적응수준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마다의 적응준비도를 고려하여 각 개인에 맞는 다양한 도움들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설명량인 R^2 를 고려해 볼 때,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은 개인적 영역(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 각각 16%와 15%),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 각각 15%와 9%), 그리고 교육적 영역(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설명력 각각 17%와 12%)이었다. 세 영역 중에서도 특히 외상경험의 정도 및 건강상태,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세 가지 요인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초기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둘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하나둘학교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과정상의 문제영역 중 외상의 경험 역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외상이 개인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외상경험은 초기의 전문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상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남한정착 초기부터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응의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심리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을 영역별로 나누고 통계분석을 통해 영역들 간의 영향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 준비도 및 적응 상태에 대해 다양한 영역을 측정함에 따라 각 영역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록(2003).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육사논문집, 제59권 제3호, PP.249-271.
- 금명자·김동민·권해수·이소영·이희우(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수(2003). 국내탈북동포들의 정착지원과정 및 살아가는 모습. 제5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문화일보.
- 김윤영(2005).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18-242).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선한승(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심포지움 논문집, pp.1-16.
- 윤인진(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제2호, PP.123-184.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pp.175-224.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호(1996).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pp.739-789.
- 이준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4권 제1호, pp.89-101.
- 정진경(2002). 북한사람들의 성격특성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권 제2호, pp.163-177.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pp.109-167.
- _____(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 의식과 생활만족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440-466).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조영아·전우택·유시은·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467-484.
- 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 종교성향과 우울정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568-584).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통일부 용역 연구.
- 통일연구원(2005). 통계자료(대북인도사업). <http://www.unikorea.go.kr/index.jsp>
- Berry, B.(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 Drei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Gibson, M. A.(1997). Complicating the immigrant/involuntary minority typ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Vol.28 No.3, pp.431-454.
- Koser, K.(1997). Social networks and the asylum cycle: The case of Iranian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591-611.

Marlene, B. S., and Kelly, D. B.(2004).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Vol.1 No.1, pp.43-56.

Meredith, L. S., Wenger, N., Liu, H., and Harada, N.(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8 No.1*, pp.103-113.

ABSTRACT

A Study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Baek, Hye-Jeong* · Kil, Eun-Bae** · Yoon, In-Jin*** · Lee, Young-Ran****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ir preparatory levels. The preparatory levels were measured in terms of six areas; personal area, social area, educational area, time area, technical area and trauma area.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were measured in terms of two area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Results showed that the personal area, the educational area, and the trauma area well explain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relatively to the others. Amongst the areas, the level of trauma, the condition of health,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Hana-Dul scho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ey 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reparatory level of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externalizing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7월 26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orean National Sports University

*** Korea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